

국제여행소설에 나타난 국외 도시 장소 정체성의 상상 방식*

- 소설집 『도시와 나』를 예로 들어

조명기(부산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장소 정체성을 통한 자아 정체성 재구성
의 양상과 주체 |
| 2.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미지
감의 연동 | 4. 에도 혹은 벨랑콜리 |
| | 5. 맺음말 |

1. 머리말

인간의 삶은 보금자리와 모험, 애착과 자유 사이의 변증법적 운동이다.¹⁾ 여행·관광²⁾은 인간 삶의 이런 운동이 개인의 건강, 자유, 자아 발견과 같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1)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94쪽 참조.
2) 관광은 여행의 한 형태이고 여행은 관광과 달리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도 가능한 행위 유형으로서 관광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관광은 회귀를 전제로 일상 거주지를 떠나는 신체적·공간적 이동 행위이며 이러한 이동은 일상적 시공간의 구조와

근대적 가치와 접맥되면서 제도화된 근대적 문화현상이다.³⁾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 역시 초월적 질서를 이성적 합리성으로 대체하고 자아와 세계가 균열된 시대에 문제적 개인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재현하는 근대적 산물이다.⁴⁾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미지의 공간을 포획함으로써 자아를 탐구해가는 양상을 강조하는 것은 여행소설의 특성을 넘어 근대의 두 산물 즉 소설이라는 문학장르와 관광제도가 공유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소설은 근대⁵⁾의 공간 기획·구조화와 그 변화 양상이 인간의 삶·세계관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일제강점기의 여행소설은 주로 동경, 만주, 경성 등을 목적지로 삼았다. 이 소설들은 반제국주의·반봉건이라는 거대담론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주체 되기를 위한 계몽, 자기성찰을 통해 주로 근대적 지식인의 자의식 등을 드러냈다.⁶⁾ 내지와 북국, 경성 등은 근대를 상징하는 도시들로 식민지 조선이나 주변부 공간은 묘지, 빈민굴 등으로 묘사되었다. 근대화의 상대적 수준이 출발지

단절되는 특성을 가진다.(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한울, 2007, 34쪽 참조) 관광은 자발적·유희적·근대적 특징을 지니며 여행에 여가가 접목된 레크리에이션 여행 개념이다.(이미립 외,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17쪽) 그러나, 이 글은 여행과 관광을 특별한 구분 없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여행·관광은 짧은 기간 동안 일상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떠나는 모든 종류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 글은 여행·관광이 근대 이후에 본격화·제도화된 문화 현상임에 특별히 주목한다.

- 3) Ning Wang, In-jin Heung · Chae-seok Ho,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34~35쪽, 39쪽 참조.
- 4) Georg Lukacs, Ban-seon-gwan, 『소설의 이론』, 심실당, 1985, 30쪽 참조.
- 5) 이 글에서 근대(성)는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포스트모더니티가 모더니티를 이미 대체했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근대에서 시작되어 후기근대에 새롭거나 상이해 보이는 형태로 발전된 제도로서의 관광에서 개인의 발견과 강조 그리고 질서와 구조의 생산성 심화라는 상이한 두 양상의 공존 즉 개인화된 비개인성을 공동되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성의 양면성과 관광의 양면성(예정과 증오)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Ning Wang 역시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근대적 질서의 두 가지 상이한 형태로 이해하면서 근대성이라는 용어를 탄력적으로 사용한다.(Ning Wang, 앞의 책, 12, 14, 43~45쪽 참조)
- 6) 이미립 외, 앞의 책, 104쪽 참조.

와 목적지를 구획하고 위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경계에 대한 당위와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여행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연구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근대 산업의 성장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국내외적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국제여행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를 소설화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근대화의 세례 속에 등장한 1990년대 이후의 여행소설은 국제여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⁷⁾ 이 국외 공간들의 발견이라는 과정을 경유한 이후에야 국내의 여러 공간들을 재발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국외 공간의 발견은 국내 공간의 재발견을 유도했는데 각 공간들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글로컬(Glocal)화의 또 다른 양상이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행소설은 시공간의 압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상들 즉 다양한 시공간적 층위가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근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글은 공간인식 층위 특히 근대 국민국가 층위와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한국 작가들이 국외 공간들의 장소 정체성을 상상하고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연결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은 장소 정체성을 공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거나 변치 않는 원천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소 정체성은 현재의 요구에 의해 구성·생산되는 문맥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할 때 국제여행소설들이 재현하는 국외 공간들의 장소 정체성은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중 스케일적 관계망과 여행자 개인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세계관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지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여행자 개인의 감각과 지식이 독자적이거나 자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행소설은 근대하나 글로벌화의 수준 혹은 국민 국가의 공간 규정력 등에 일정 정도 제약되기에,⁸⁾ 중층적 공간인식 과정에서

7) 위의 책, 25쪽 참조.

8) 황국명, 「90년대 여행소설과 공간 전위」, 『오늘의 문예비평』 22, 오늘의 문예비평, 1996, 212쪽 참조.

어떤 층위가 어떤 방식으로 장소 정체성 재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외 공간들의 장소 정체성은 여행자 개인의 규정력이 개입하기 이전에 글로벌-해당 국민국가-해당 로컬-개인들에 의해 이미 중층적·유동적으로 맥락 지어진 상태이기에, 장소 정체성은 여행자의 상상적 규정력과 기성의 장소 정체성이 상호 침투하거나 충돌하는 현상이 된다. 이는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여행자의 상상력·규정력이 기존의 장소 정체성에 의해 조건 지워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행은 출발지·정주지와 목적지를 공간인식 층위라는 관점에서 재사유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국내여행이나 국제여행은 국민국가와 글로벌이라는 공간 층위에 대한 재인식을 강요하지만 실제 출발지와 목적지는 이보다 아래 층위에서 특정되는 구체적이고 더욱 한정된 공간 즉 로컬(local)이기 때문이다. 관광과 세계화가 장소 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로컬들의 차이를 유도하는 데서 알 수 있듯,⁹⁾ 일상을 꾸려왔고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공간들인 로컬은 내셔널과 글로벌이라는 상위 공간 층위의 개입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스케일의 공간이다.¹⁰⁾ 구체적인 출발지와 목적지로서의 로컬과 장소 정체성에 대한 추구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전개되는 다중 스케일적 공간인식은, 장소 정체성 상상과 구성의 방식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의 여행소설이 국외의 공간과 장소 정체성을 개인의 강조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적 양상과 관련짓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설집 『도시와 나』¹¹⁾의 여행소설을 예로 삼는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내여행을 다룬 소설집 『그 길 끝에 다시』¹²⁾를 참고 텍스트로 활용할 것이다. 두 소설집은 동일한 출판사의 연속기획물로, 각각 7명의 작가가

9) 낭왕, 앞의 책, 209쪽 참조.

10)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최병두 외,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89쪽 참조.

11) 정미경·성석제·함정임·백영옥·서진·윤고은·한은형, 『도시와 나』, 바람, 2013.

12) 함정임·손홍규·이기호·윤고은·함정임·한창훈·김미월, 『그 길 끝에 다시』, 바람, 2014.

쓴 7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것인데 이 중 3명의 작가가 두 소설집에 동시에 참여했다. 『도시와 나』는 아비뇽, 뉴욕, 도쿄, 브장송, 세비아, 로스앤젤레스, 튀니스를 대상도시로 선정했는데, 이런 기획은 애초부터 내셔널 층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로컬을 목적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그런데 소설집에 실린 7편의 단편 중 ‘정착-떠남-정착’의 서사¹⁴⁾로 진행되는 여행소설은 총 5편이다. 두 소설집 『도시와 나』와 『그 길 끝에 다시』는, 국제여행과 국내여행을 통해 구성되거나 재현되는 심상지리와 주체의 위치를 배치하는 상상력의 층위를 살피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두 특정 작가의 작품이나 중복 없이 묶인 작가군을 통해 최근 한국 여행소설의 일반적 특성을 추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해주시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제여행소설과 국내여행소설의 장소 정체성 인식 층위와 방식을 비교·대조하는 일련의 작업 중 국제여행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다.¹⁵⁾

2.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미지감의 연동

한국인이 여행자로 등장해서 해외의 도시들을 찾는 『도시와 나』의 소설들은 대체로 여행·관광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성석제의 「사냥꾼의 지도」의 ‘나’는 1달 일정으로 프랑스 아비뇽을, 정미경의 「장마」의 윤과 장은 1박2일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을, 함정임의 「어떤 여름」의 나미는 10여 일 동안 프랑스 남부지방과 브장송을, 윤고은의 「콜롬버스의 뼈」의 ‘나’는 10일의 일정으로 스페인 세비야를 방문한다.

13) 이는 국내여행을 다룬 소설집 『그 길 끝에 다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소설집은 속초, 정읍, 원주, 제주, 부산, 여수, 춘천 등의 로컬을 목적지로 삼아 각각 여행하는 소설들로 꾸며져 있다.

14) 이미립 외, 앞의 책, 30쪽 참조.

15) 『그 길 끝에 다시』의 국내여행소설들이 장소 정체성을 인식하는 층위에 대한 분석은 다른 글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의 이동이 관광으로 규정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냥꾼의 지도」의 ‘나’는 “관광과 여행, 모험은 뭐가 다를까”라고 자문한 뒤 이를 “대상의 거죽을 스쳐지나는 것과 거죽 속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거죽을 열고 세포 속의 물질을 대상과 뒤섞는 것의 차이”¹⁶⁾로 구별하면서, 자신의 경험은 “무서운 모험”이라고 규정한다. 「어떤 여름」의 나미는 “도심의 골목과 식당”을 “발디덜 틈 없이” 꽉 채우면서도 “한 명도 호수를, 시를 생각하지 않는 관광객과 “라마르틴의 ‘호수’를 찾아가는 열혈 팬”(이상 141)인 자신을 구별한다. 「콜럼버스의 뺨」의 ‘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세비아 한복판”(이상 151)에서 “모두가 다 관광객은 아니”(152)라고 말하며 “스페인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159)를 찾는다.

자신의 이동을 관광과 구별하고자 하는 열망은 진정성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된다. 관광이 제공하는 것은 미지 대상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의사 이벤트(pseudo-event)¹⁷⁾·무대화된 고유성(staged authenticity)¹⁸⁾라는 비판적 태도가 자신의 이동을 관광과 구별하려는 인물들의 의지로 연결되고 있다.¹⁹⁾ 목적지에는 본질적인 장소 정체성이 존재하는데 관광은 이 미지의 대상을 허위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반해 자신들의 이동은 장소 정체성의 핵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이 의사 이벤트나 무대화된 고유성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 역시 진정성에 대한 여행자의 강박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동을 관광과 구별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진정성에

16) 성석제, 「사냥꾼의 지도-프로방스의 자전적 여행」, 정미경 외, 『도시와 나』, 바람, 2013, 53쪽. 이하 인용 소설 제목과 인용면만 기입.

17) 다니엘 부어스틴, 정태철 옮김, 『이미지와 환상』, 사계절출판사, 2004, 33~34쪽, 151쪽 참조.

18) 덕 맥켄널, 오상훈 역, 『관광객: 신유한계급론』, 일신사, 1994, 120~133쪽 참조.

19) 그러나 고유한 후면무대(back-stage)에 대한 환상 역시 진정성을 추구하는 관광의 한 성격이며, (G. J. 에쉬워드·A. G. J. 디트보스트, 박석희 옮김, 『관광과 공간변형』, 일신사, 2000, 117~120쪽 참조) 관광의 사회적 관계에서 도출된 것이다.(존 어리, 「관광사회학」, 크리스 쿠퍼 엮음, 고동완 옮김, 『포스트모던 관광의 이해와 연구』, 교문사, 2008, 16쪽)

대한 강박은 오히려 다음 두 가지 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물들이 현재 미지·무지의 상태에 있는데 진정성을 경험함으로써 지(知)의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미지·무지의 대상이 방문지의 진정성 즉 장소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고 인물 개인의 진정성 즉 자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어.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결국 스스로의 세포, 원자에서 나오는 법이라고.(『사냥꾼의 지도』, 53)

체질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하는 말들과 마주칠 때면 새삼 나의 그것들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거슬러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궁금해졌다. 나를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궁금해진 것이다.(『콜럼버스의 뼈』, 163)

『사냥꾼의 지도』의 ‘나’는 처음 방문한 아비뇽 일대를 구글 지도에 의지해 사전거로 여행한다. ‘나’는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무지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빈번하게 좌절된다. 결국 구글 지도에 의지한 대가로 곤경에 빠진 ‘나’는 “एं터리”(52) 지도에 맞서 “스스로의 세포, 원자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나의 직감”(51)·“나를 믿을 수밖에 없”(52)다고 결론 맺는다. 이 과정에서 구글 지도와 직감의 관계는, 머리와 손가락의 관계 혹은 노트북과 커피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기완결성 없는 희곡·상상·상징적 설정과 연극·의미의 생성·신체적 위협의 관계 등으로 변주된다. 희곡은 “자기완결성”이 부족하기에 “연극으로 재구성되고 배우의 연기와 입을 통해 대사와 지문이 체화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13) 장르인 반면 연극은 “내 잘난 상상, 상징적 설정이 신체적 위협을 강요”하는 장르로 규정된다. 이러한 관계구도 하에서 소설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꺼내는 ‘나’를 대상지 주민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처럼 쳐다”(33)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목적지의 진정한 장소 정체성과 인터넷 정보 기호 사이의 괴리 특히 추상적인 상상과 상징으로 구성된 구글 지도·연극

의 자기완결성 결여와 허위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구글 지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난 이동을 실천함으로써 “관광을 하러 왔거나 여행을 하러 온 사람이 못 볼 풍경, 생활의 속살”(36)을 보게 되면서 직감·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발견하고 귀환하는 서사는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콜럼버스의 뺨」의 경우 ‘내’가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은 세비아 대성당의 콜럼버스에 대한 서사와 “여러모로” “닭아”(162) 있다. 「장마」의 윤은 오래 전 자신을 “두고 달아났”(112)다가 사망한 어머니를 찾아 주소 쪽지를 들고 일본 초행길에 나선다. 서울에서의 윤의 일상이 애착의 대체물인 인형 푸우를 통해 유지되었다면 일본행은 애착의 원대상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여러 차래의 방문을 통해 일본 도쿄를 이미 알고 있는 장의 안내와 도움으로 인해 윤이 무지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들은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무지를 자아에 대한 무지와 밀접하게 연관시키며 목적지의 진정한 장소 정체성에 대한 강박을 인물 개인의 진정한 자아 정체성 탐구와 직결시킨다. 소설들의 인물이 보여주는 관광 아님에 대한 열망은 두 정체성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통합²⁰⁾되는 경험에 대한 기대 그것이다. 「사냥꾼의 지도」의 경우, 희곡과 연극은 “완전히 뒤집혀서 안이 밖이 되고, 밖은 지옥이 되어”(이상 16)버린다. 소설들은 통합의 과정을 통해 두 정체성을 미지의 대상에서 지의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아 정체성과 장소 정체성은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감각을 통해 그 존재가 설명되는데, 이러한 결여 감각은 정체성에 대한 무지나 정체성 상실 혹은 실존적 비진정성²¹⁾이라는 근대사회의 질병, 근대적 상상에서 비롯된

20) 영화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통합은, 지체에 의하면 주체와 대상 그리고 주관과 객관 사이에 복잡한 자리바꿈이 전개된다는 것, 자기 폐쇄가 선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배제된 외재성은 언제나 내부에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부 없이는 내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 없이는 외부도 없다는 것이다.(슬라보예 지젝, 오영숙 외 옮김, 『진짜 눈물의 공포』, 울력, 2004, 100쪽, 104쪽 참조)

21) 위의 책, 111쪽 참조.

다. 세계 탐색, 상처 치유, 자아 상실 및 자기 수련 등은 관광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²⁾ 근대의 일상적 삶이 복잡성, 가공성, 자기 규제 등의 존재적 비진정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일상의 일시적 단절인 관광은 단순성, 자연성,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토피아와 실존적 진정성을 환상적으로 제공한다.²³⁾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미지의 감각을 생산하고 이 정체성들을 지의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실존적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 관광이라면 그리고 관광은 근대성 탄생의 신호탄이자 근대성의 결과라고 한다면²⁴⁾, 소설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관광 아ні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 연계와 추구에 대한 강박 역시 관광의 근대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양상인 셈이다.

『도시와 나』 소설들의 서사는, 미지 공간의 장소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식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따라 전개된다. 그런데 미지를 지의 상태로 전환시킬 주체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시선들의 교차를 통해 장소 정체성에 대한 인지를 시도하는데 이는 자아 정체성의 발견·조정의 과정과 연동된다. 『사냥꾼의 지도』의 ‘나’는 희곡작가의 신분으로 아비뇽 연극제에 참석하여 자전적 여행을 한다. ‘내’가 미지의 방문지를 인식하고 여행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상상·상징을 특별한 분열 없이 추상화·보편화·전체화해가는 희곡 창작의 방식에 걸맞게 구글 지도라는 가상적·편재적·균질적 규범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때의 ‘나’는 관광과 구글 지도의 결합에 의한 구조적 효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설의 서사는 전자매체에 의해 정리된 특정 공간의 정보가 방문지의 실재와 일치하지 않음을 점층적으로 보여준다. 구글 지도와 실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사냥꾼의 지도 즉 현지인의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나 ‘나’의 직감에 의지하기로 결심한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과는 반대되는 방향”(52) 즉 현지인의 정보와는 다른 방향을 선택한다. 소설 부제인 “프로방스의

22) 이미립 외, 앞의 책, 32쪽 참조.

23) ning, 앞의 책, 114쪽 참조.

24) 위의 책, 23쪽.

자전거 여행”에서 ‘프로방스’라는 방문지는 구글 지도-사냥꾼의 지도-‘나’의 직감이라는 다양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공간이며, ‘자전거 여행’은 이 시선들이 충돌한 결과로 자아 정체성이 생성되고 위치를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이 소설에서 교차되는 시선들은, 장소 정체성 자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중스케일적 공간인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들을 가리킨다.

「장마」는 윤과 장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전개된다. 장의 일본행은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내용물을 알지 못하는 물건을 전달하기 위한 여행이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이동 역시 기계적으로 반복된다. 반면, 윤의 일본행은 초행길이며 방문의 목적 역시 단 두 번 잠시 만났을 뿐이기에 미지의 대상인 사망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다. 「장마」의 도쿄에서는 반복에 의한 익숙함과 무목적성의 시선 그리고 낯섦과 목적성의 시선이 교차한다. 「어떤 여름」의 방문지는, 사망한 약혼자의 수첩에 적힌 호텔들을 순례하는 나미의 시선과 “정신이 혼미해지는 신비로운 기분”(123)에 사로잡혀 그녀와 동행하는 프랑스인 장의 시선이 1인칭의 시점으로 번갈아가며 전개되는 공간이다.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들은, 여행자의 지식체계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았던 두 정체성 즉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과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지식체계 내로 포섭해가는 과정을 다룬다. 그리고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선들의 교차를 통해 장소 정체성 인식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 결여를 해소하고자 한다.²⁵⁾

25) 이는, 국내여행을 다룬 소설집 『그 길 끝에 다시』의 여행소설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 길 끝에 다시』의 국내여행소설들은 모두 서울에서 출발하며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다. 목적지에 대한 기지감은 출발지·정주지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기지감과 직결된다. 이로 볼 때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들이 보여주는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결여감은 인물들이 국민국가 영토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3. 장소 정체성을 통한 자아 정체성 재구성의 양상과 주체

비록 여행자의 시선에 내재되어 있는 신념, 기대 등이 방문지에 투사된 결과라 할지라도,²⁶⁾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들에서 방문지의 장소 정체성은 미지의 자아 정체성을 일련의 지식으로 생성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이나 근거로 기능한다.

백영옥의 「에인의 애인에게 들은 말」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서블렛을 구하고 자 하는 “윌리엄스버그의 베드포드는 이제 관광지에 가까”(59)운 공간이다. 이 소설이 부각하는 관광지 뉴욕의 성격은, 여러 시선들이 상호 교환되지도 충돌하지도 않고 일방향으로 전개되는 도시, 소외감이 지배하는 대도시다. 그의 집에 서블렛의 형태로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1년 8개월 동안 그를 사랑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와 나는 2주에 한 번 같은 강의실 안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함께인 적이 없”으며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83)다. ‘내’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눈은 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목격하는 것은 “우리 세 사람의 시선이 조금도 부딪히지 않고 빗겨나가는 풍경”(이상 70)이다.

그의 입술이 닿았을 컵과 머리카락이 스쳤을 베개와 책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직접 만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막 발굴에 성공해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움이 가득한 고고학자처럼 주변을 그저 맴돌았다.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듯 방의 구석구석을 살폈다.(69)

스웨터를 낀 순간 소리는 사라졌고 풍경은 정지되었다. 나는 점점 고고학자이길 포기했다. (중략) 뜨지 못한 스웨터는 누군가의 잘려 나간 몸처럼 애처로워 보였다. 나는 스웨터를 왼쪽 뺨에 조심스레 갖다댔다. 털뭉치에선 낡은 먼지 냄새가 났다. 마르지 않은 눈물 냄새가 이런 걸까. 나는 박스

26) ningwang, 앞의 책, 97쪽 참조.

안에 꽂혀 있던 바늘을 손에 쥐었다. (중략) 완성되지 않은 스웨터를 다시 짜는 일, 그것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었다.(79~80)

강의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집에서도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다. ‘나’의 시선은 그가 부재할 때 드러나기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다. ‘나’의 이런 태도는 흔적들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사진을 찍듯 유심히 살피거나 주변을 그저 맴도는 고고학자의 태도에 비유된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뉴욕에 와서야 나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았다”(67)고 말하지만 ‘내’가 정작 주목하는 것은 다양성과 복잡함의 원인자 징후인 거리두기의 태도라는 사실이다.²⁷⁾ 대도시 뉴욕은 일방적인 여러 시선들이 상호간섭 없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부재하는 그를 향한 ‘나’의 일방향적 애정은 뉴욕의 이러한 성격과 상동의 관계에 있다. 또 하나는, 시선의 대상이 흔적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130년이 된 집은 “낡은 것을 소중히 다루었을 때 생기는 광택”으로 인해 “새것처럼 반짝”(72)이며, “맨해튼 이곳저곳”은 “보수공사 중”(78)이다. 이는 뉴욕에 오기 전 살았던 “재개발 직전의 낡은 아파트”(72)와 오래된 집에 더 많이 쌓이는 먼지 등과 대조를 이룬다. ‘내’가 주시하는 뉴욕은, 과거·역사를 삭제하지 않고 흔적들을 간직하고 보수하여 광택을 내는 도시, 모든 존재가 주체로서 ‘나’와 지금 대면하는 대신 ‘내’의 시선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기를 요구하는 도시다. 그의 흔적을 향한 나의 고고학자적 태도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지극히 “뉴욕적”(66)인 것이 된다. ‘나’의 사고와 행위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장소 정체성을 모방한다.

그러나 그와 2년 3개월째 동거하고 있는 그녀의 편지와 스웨터를 발견했을 때 ‘나’의 뉴욕적인 태도는 위기에 봉착한다. 그에 대한 사랑을 “애처로울 만큼 노골적”(73)으로 드러내는 편지는 그에게 전달되지 못했으며 그녀가 그를 위해 짜는 스웨터 역시 미완성 상태다. 미발송 편지와 미완성 스웨터의 발견은

27) “적어도 내가 아는 윌리엄스버그에는 남자 운동화가 분명한 커다란 신발을 신고 어기적대며 걷는 여자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77~78)

그를 향한 시선이 ‘나’만의 일방적 시선이 아니라 그녀의 시선과 정확히 일치하고 겹치는 시선임을 알려준다. 동시에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가 상기되면서 ‘나’는 그녀와 동일화된다. ‘나’의 시선이 타인의 시선과 “빚겨나가”지 않고 시선의 위치와 방향성에서 중첩되어 있음을 그리고 “130년 된 이 집은 그의 세계보다 그녀의 것”(71)이며 그에 대한 그녀의 시선이 ‘나’의 시선보다 더욱 오랜 광택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빚겨나가는 새로운 시선 즉 그녀를 향한 시선으로 시선의 방향을 변경한다. ‘나’는 그를 위한 미완성 스웨터를 풀어 그녀를 위한 스웨터를 만들기 시작한다. 고고학자의 태도를 포기하고 타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는, ‘내’가 규정한 뉴욕의 성격 중 거리두기와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 누구의 사랑도 이어지지 않는”(82) 방식 즉 일방적인 시선의 방식으로 “그들과 나를 단단히 엮어 매듭”(83)지으며 뉴욕 “원래의 풍경”(84)을 복구한다.

뉴욕의 장소 정체성은 ‘나’의 시선 방향과 행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행동에 대한 의미 규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짜사랑은 ‘그는 누구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잘못된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혼란이 이 적요로운 사랑 앞에선 어느덧 무의미해진다.(81)

‘나’는, 정신적인 고향인 서울로의 이동을 ‘돌아가다’로 표현하고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수영을 두고 “한 번도 그녀가 뉴욕에 살지 않았”(84~85)고 “잠시 뉴욕에 체류한 것뿐”(85)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수영을 짝사랑한 그에게 있어 수영의 이동은 “뉴욕을 떠나다”라는 충격적 사건일 것이라고 대조적인 해석을 내린다. 연이어, 서블렛을 마치면서 발생하는 ‘나’의 이동을 “당신의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집으로 돌아”(85)가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일방적인 시선들의 비교차적(非交叉的) 공존과 거리두기 그리고 옛것에 대한 애착

이라는 뉴욕의 장소 정체성은, '나'에 대한 그의 시선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요구한다. 오히려 그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나'를 "나의 집"으로 되돌려놓는다. '나'는 「사냥꾼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그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사냥꾼의 지도」, 53)어 회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중얼거림의 방식으로 고백한다. 「에인의 에인에게 들은 말」은 자아 정체성을 일방적인 시선들의 혼재라는 장소 정체성을 학습하고 모방한 효과로 재현한다.

「콜럼버스의 뼈」는 "시에스타는 도둑처럼 찾아온다"(151)는 현지인의 설명을 특별히 부각하면서 시작된다. 히랄다 탑에서 내려다 본 세비아는 "이제 막 시에스타를 끝내고 저녁을 준비하는"(168) 도시다. 시에스타는 관광객과 현지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관광객으로 봄비는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힘이 발휘되는 "원심력"(153)을 갖고 있다. 나아가 현지인 콜롬의 아버지의 죽음을 "영원한 잠", "아주 편안한 모습"의 "마지막 낮잠"(177)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시에스타와 함께 세비아를 특징짓는 또 하나는 콜럼버스의 뼈에 얽힌 일화다. 세비아 대성당에 보관된 뼈의 DNA를 검사하여 콜럼버스가 "누구의 조상"(177)인지를 가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DNA에서 발견된 특징이 모든 DNA 제공자들의 것과 "공통적으로 일치"(176~177)함에 따라 콜럼버스는 그들 모두의 조상이 된다. 콜럼버스를 특정한 소수의 조상으로 한정하지 못한 결론에 콜럼 가족들은 "위로"와 "안도"(177)를 느낀다. 콜롬의 다섯 남매는 자신들이 "일찌감치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류상의 아버지는 다섯 남매를 모두 그의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우애와 화목"을 만들어낸다. '내'가 목격하는 것은 다섯 남매가 "외모도 성격도 닮"(이상 175)은 "콜럼버스의 형제들로 뭉"(177)여 있는 모습이다.

세비아의 이런 성격들은 불면증과 아버 흔적 찾기의 실패라는 '나'의 결여와 밀접히 연관된다.

그건 함부로 뱉어낼 수 없는 뜨겁고 어떤 것이었다. 단지 그 감정 하나로 이 세비야 골목들과 내가 건넌 몇 개의 바다와 낮선 국경들이 모두 합당한 것이 되기도 남을 것 같았다. (중략) 그녀의 노래를 듣는 동안 내 안에서 어떤 공기가 역류했고, 비로소 나는 편안해졌다. 노래가 끝나자, 콜롬 가족은 나에게 아버지가 이 곡을 들려주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수첩 속 주소가 내게 온 데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다.(179)

마침내 나에게도 도둑이 왔다. 나는 적당히 데워진 태양 속을 서서히 통과하면서 잠들기 시작했다. 이미 즐고 있는 마차를 타고, 한없이 느리게.(182)

‘나’는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낮선 도시에 도착한 후부터는 보란 듯이 잠을 생략”한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두 번도 더 잠”드는 “이 도시에 흡수되지 못하고 거리의 먼지처럼 떠”(이상 165)다닌다. 거리 배회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한 행위이지만, “불면증의 기원이 어디인지 헤아려보는 건 너무 아득한 일”(165)이듯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번도 내 삶에 있어서 실물인 적이 없”는 “막연”한 존재이기에 아버지의 행선지라고 적힌 주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180) 즉 부재의 공간이다. 이 도시로부터 “외로움”과 “소외”(174)를 느낄 때 ‘나’와 콜롬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콜롬버스의 뼈에 관한 일화, 자신들의 아버지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 주소지가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를 들려준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편안”을 느낀 ‘나’는 “구토에 가까운” “감정의 배설”(174)을 하고 “전율”, “포만감”(180)을 느낀다. 이후 마차 위에서 진행되는 관광과 낮잠은 세비야의 장소 정체성이 ‘나’의 결여를 해소한 결과이다.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세비야의 두 가지 특징 즉 시에스타와 콜롬버스의 뼈 일화·콜롬 가족은 정확히 ‘나’의 결여 지점을 향하고 있으며, ‘나’의 결여는 세비야의 장소 정체성으로 인해 충족된다. ‘나’는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결여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한다.

「어떤 여름」의 브장송은 “요란한 라틴 음악에 맞춰 격정적으로 춤을 추”(132~133)는 도시,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이 “프랑스에서 가장 예쁜 도시 중의

하나”(137)라고 묘사한 도시, “야회夜會”·“폭죽처럼 터지는 무도舞踏”의 도시이지만, 나미가 주목하는 것은 “여름 한철 반짝 하고 깨어나는 이 도시” 뒤의 “무덤 같은 권태”(이상 133)다. 이에 걸맞게 브장송은 “한 청년이 강물로 뛰어내리는” 투신사건이 “싱거운 웃음만 나오는”(136) “재밌는 이야기”(135)로 “담담하게”(136) 회자되는 도시다. 또한, 우연히 나미의 여행에 동행하게 된 프랑스인 장은, 한국인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는 나미에게서 “신비로운 기분”과 “신기루”(123)를 체험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스탕달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동양 여자가” 하고 생각함으로써 나미를 동양·과거·향수·“신비”(이상 125)·호기심과 연결시키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반면 나미가 그에게서 “자유로움과 호감”(136)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서울에서의 나미의 삶과 과거 그리고 여행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살 때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늘 끼고 살”(131)었던 그녀가 어떤 소통기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이번 여행에 나선 것은, 서울과 브장송을 단절시킴으로써 서울에서의 일상이 브장송을 유토피아로 상상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미가 주목하는 브장송의 성격인 “무덤 같은 권태”는, “본 대로 그린다”는 신념에 따라 “여자의 음부만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은” 화가 쿠르베의 그림을 보았을 때의 “당혹스러움”·“충격”(135), 그리고 서울과 브장송을 단절시키려는 태도가 결합하여 브장송의 장소 정체성 파악에 적용된 결과이다. “무덤 같은 권태”의 발견은 “십 년 전이라는 시공간은 나에게 화석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최종 결론과 “여름은 지나갔다”(146)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어떤 여름」은, 정주지의 일상성이 목적지의 신기성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부하고 목적지의 일상에서 장소 정체성을 포착함으로써, 정주지와 목적지의 단절 그리고 정주지와 목적지의 동일성 발견이라는 역설을 성립시키고 현재·정주지에서의 자아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인정한다.

『도시와 나』 소설들의 목적지는 국경 너머의 도시 그것도 처음으로 방문하는 도시 즉 현재 지식의 영역 밖에 외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 자신의 이동행위를

관광과 구별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강박은 미지의 대상을 지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욕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지식 획득을 통해 “그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된다. 장소 정체성 인지를 통한 자아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서사는, 새롭게 습득한 지식이 어떤 층위에서 “그 전과는 다른 존재”의 구성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새로이 편입된 지식은, 기존의 지식과 상호영향 관계에 놓여 있는 출발지·정주지의 사회·경제·문화적 구조에 대한 성찰과 연결되지 않는다.²⁸⁾ 소설이 목적지라는 미지의 대상을 지식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식에 내재되어 있을 동일화への 유혹(국민국가라는 집단주체에 대한 상상) 혹은 동일화의 폭력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 내용의 불완전성을 개인의 결여로 치환하여 발견하면서 보완하기를 강조한다. 나아가, 지식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시킨 장소 정체성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여행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지의 대상이었던 자아 정체성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알고 있었던 것으로 위장할 수 있게 한다. 지식이 있다고 믿는 곳에 사실 있는 것은 욕망이 듯,²⁹⁾ “그 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지식의 결과 혹은 욕망의 대상은 ‘그 전’ 즉 여행 이전 출발지·정주지에 자아 정체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체 역시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가정을 자동적으로 긍정하게 만든다.

이는 국내여행을 다룬 『그 길 끝에 다시』의 소설들과 의미 있게 연결된다. 목적지(속초, 제주 등의 국내 도시)에 대한 기억과 기지감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그 길 끝에 다시』의 여행자들은 목적지에서 절대적 타자성·이질성 즉 망각의 돌출을 목격한다. 목적지에 대한 기지감과 망각은 목적지와 출발지를 구획하고 이 공간들의 장소 정체성을 국가경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근대 국민국

28) 국제여행은 이질적인 공간의 전유를 통해 국민국가라는 집단주체를 형성해가는 경향이 있지만, (차혜영, 「문화체험과 에스노그래피의 정치학-식민지 시대 서구지역 기행문 연구」, 『정신문화연구』 1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32쪽 참조) 이 소설집의 국제여행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여행자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다.

29) 들뢰즈·가타리, 조한경 옮김,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7, 94쪽 참조

가의 공간구조³⁰⁾가 야기한 효과이다. 목적지는, 근대 국민국가의 유기체적 공간구조에 의해 관리·규율될 수 있는 타자성·이질성을 장소 정체성으로 획득한 공간으로 상상·구성되어 기억된다. 이 소설집의 국내여행소설들은 장소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행위가 근대 국민국가의 유기체적·규범적 공간구조를 주체화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설들은 동시에 목적지의 절대적 타자성을 드러내고 재현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 자체가 불안과 공포를 내장한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그 길 끝에 다시』의 여행소설이 타자성·이질성을 관리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를 생산하는 권력과 그 한계를 재현한다.³¹⁾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은, 국민국가의 유기체적·규범적 공간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간에 놓였을 때 개인은 장소 정체성과 함께 자아 정체성마저도 미지의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즉 세계화의 산물인 국제여행에서도 국민국가 층위의 인식이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의 한계를 진정한 자아 정체성의 결여와 지향이라는 방식으로 재현한다. 따라서

30) 여기서 공간구조는, 근대국가의 기획과 의지로 인해 국가 영역 내의 공간들을 추상적으로 수량화하고 이질성·차이를 관리·통합 가능한 것으로 재생산하여 유기체적이고 위계적인 근대적 공간으로 조직하는 상호기능적 연관들을 가리킨다.(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1~80쪽 참조) 각 공간들은 차이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시선에 의해 발견되는 타자적 공간으로 생산되는데, 이때의 차이·타자성은 국가의 유기체성에 봉사하거나 적어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것들이다. 이런 차이는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장소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포섭된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작동범위는 국민국가 내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계화시대의 남북관광은, 전지구화라는 환상을 전제로 서양과 구별되는 차이를 지닌 타자적 공간을 구성하고 소비한다.(닝왕, 앞의 책, 200쪽 참조)

31) 이에 대해서는 조명기, 「국내여행소설을 통해 본 장소 정체성의 구성 양상-소설집 <그 길 끝에 다시>를 예로 들어」,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3),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원, 2016를 참조하시오.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강박적 욕망은, 여행 이전의 출발지인 한국이라는 국가의 공간구조를 내면화하는 것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존방식 중 하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동시에 개인을 자아 정체성의 주체로 호명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의 결여를 강조하는 것은 출발지인 국민국가 공간구조의 허위성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한편, 보다-알다-포획하다라는 술어들을 일련의 체계로 구조화하면서 인간을 지식의 확고부동한 주체로 정립해 온 것이 근대의 한 성격이라면 그리고 이때의 인간은 선별과 배제를 통해 각종 타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한 존재라면, 자아 정체성의 상실감과 결여의 회복에 대한 강박을 자연화하는 것 역시 개인을 발견하고 강조해온 근대성의 한 발현양상이다. 『사냥꾼의 지도』처럼 개인의 신체와 감각을 고양하는 것도 『어떤 여름』처럼 목적지와 출발지를 의식적으로 단절시키면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도,³²⁾ 여행소설이 소설장르와 관광제도라는 근대의 두 산물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근대성에 대한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들이 근대성에 대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의 위력과 허위성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개인의 위상이 그것이다. 『도시와 나』의 소설들은, 국가경계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의 허위성을 발견하고 이 공간구조에 의지해 구성되었던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상실되는 양상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계 밖의 공간에 대한 미지감 역시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에 의해 구조화된 것임을 암시한다. 『도시와 나』의 소설들은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를 거부하는 동시에 전제하는 양면성을 노정한다.

32) 나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예비 남편의 수첩과 여행 동행자 장의 명함을 버리고 “여름은 지나갔다”(147)고 선언한다. 그녀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일상은 동일하게 “권태”나 “죽음”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사고한다.

4. 애도 혹은 멜랑콜리

『도시와 나』의 여행소설들이 방문지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미지와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미지를 결합하는 근저에는 일종의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다. 소설들의 여행서사는 상실감을 극복하거나 상실감에 대응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콜럼버스의 뺨」의 ‘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세비아를 방문하며, 「장마」의 윤 또한 단 두 번 만났을 뿐인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도쿄를 찾고, 「어떤 여름」의 나미는 결혼 3일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10년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예비신랑의 수첩을 따라 브장송을 여행한다. 아버지, 어머니, 예비신랑 등을 상실한 인물들은 상실감의 극복을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들의 여행 목적은 기본적으로 애도이며 여행의 성격은 “순례”(「어떤 여름」, 146)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 드러나는 상실감에 대한 대응을 온전히 애도라고 하기엔 곤란한 점이 많다. 비록 부모나 예비신랑과 같은 가까운 사람의 치명적인 상실에서 여행이 시작되지만 여행자들은 이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나 고작 한두 차례 만났을 뿐이거나 부부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 더구나, 「콜럼버스의 뺨」의 ‘나’는 아버지의 흔적이라고 적힌 스페인의 주소가 “아무래도 오류”이며 아버지는 5년 전 “죽을 때까지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169)는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시작하며, “세비아에 도착한 첫날” 아버지의 주소가 “스페인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159)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또한 「장마」의 윤은 “엄마의 마지막을 보러온 건 아”(112)니지만 여행이 끝날 즈음 “입을 조그맣게 벌려”(113) 엄마 하고 부른다. 상실의 대상들은 “부재”(97)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인물들은 자신들이 상실한 것을 경험하거나 소유한 적이 없다. 애도의 경우 세계가 초라하고 궁허하며 자아는 자신이 상실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멜랑콜리의

경우 초라하고 공허한 것은 자아이며 무엇이 상실되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³³⁾ 사망한 아버지, 어머니, 예비신랑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국제여행을 시작하지만, 인물들은 상실의 대상들을 소유한 적이 전혀 혹은 거의 없기에 상실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여행 중인 인물들의 감정은 멜랑콜리를 동반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자아 정체성 결여는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한 인지 부재에서 발생한다.

자아 정체성과 장소 정체성은 아비나 어미 같은 “뿌리”(175)의 위치를 점유 하는데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무엇³⁴⁾에 대한 무지·미지는 주체의 결핍 때문이 아니다. 인물들은 이 뿌리를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인물들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무엇이 애초부터 부재한 상태에서 미지의 대상에 대한 상실의 감정을 먼저 학습하는데 이 학습행위를 통해 결핍을 상실로 치환한다. 멜랑콜리는 소유했던 대상의 상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대상을 결핍하고 있었던 데서 발생하며 그래서 역설적으로 결핍을 상실로 기만함으로써 대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³⁵⁾ 멜랑콜리는 결핍 즉 애초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상실 즉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인 양 치환한다.

국내 여행을 다룬 『그 길 끝에 다시』의 여행소설들과 비교할 때, 『도시와 나』의 여행자들이 실제로 상실한 것은 그들의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 길 끝에 다시』의 인물들이 인지하는 국가경계 내 공간들의 장소 정체성은 근대국가의 공간구조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각 공간들에 대한 인물들의 개인적 기억과 망각은 이 공간구조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3) 최문규, 「근대성과 “심미적 현상”으로서의 멜랑콜리」, 『뫼히너와 현대문학』 24, 한국뫼히너학회, 2005, 208쪽 참조.

34) 「장마」의 장은 도쿄에서 공연을 본 후 “나란 인간은 그림자가 없구나”(105) 하고 생각한다.

35) 최문규, 앞의 논문, 211쪽 참조.

『도시와 나』의 여행자들이 실제로 상실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예비신랑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경계 밖의 공간들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근대국가의 공간구조이다. 그리고 출발지에서도 이미 자아 정체성이 결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가 이들을 주체로 호명했기 때문이다.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국가경계 내에서의 자아 정체성은 국민국가 공간구조의 효과였지만, 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결핍이 아니라 상실의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국민국가 공간구조의 생산적 권력을 은폐하고 자연화한다.

동시에, 애도 작동과 멜랑콜리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도시와 나』의 인물들은 역설적인 또 하나의 태도를 보여준다. 인물들의 자아 정체성은 결핍된 것이 아니라 상실된 것으로 치환되고 그래서 여행하는 주체의 자아 정체성은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을 제어하고 삼킴(devouring)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애도를 위한 순례여행을 담고 있는 이 소설들에서 출발지는 여전히 상실의 공간이며, 변화·강화되는 것은 여행자의 자의식이다. 결핍을 상실로 전환하고 출발지를 목적지로 대체할 때, 출발지는 목적지에서의 현실감을 통해 부재가 증명된 공간이며 따라서 주체의 귀환은 불가능한 것 즉 출발지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 된다.³⁶⁾ 정주지에서 “뿌리”를 상실하고 그 흔적조

36) 왕철, 「프로이트와 테리다의 애도이론」, 『영어영문학』 58(4),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90쪽 참조. LA 외곽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나’와 일본인 미치코를 다룬 서진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에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나’는 “어떻게 소설을 쓰지도 모르면서 소설을 쓰고 싶다고만 생각”(202)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말로 소설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소설을 쓴다면 10년은 더 걸릴”(이상 188) 거라는 이유로 한글로 장편소설을 쓰고자 한다. 미치코는 웅알이처럼 들리는 일본인 특유의 영어 발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션이 되고자 한다. 미치코의 부모는 일찍 죽었으며 미국에서 그녀는 일어를 하지 않기 위해 일본인이 없는 시골에서 공부한다. ‘나’는 이런 자신들을 “부모들을 버리고 가출을 해서 낯선 세계에 투, 하고 던져진 아이들”(192)로 묘사한다. 부모와 일본어를 상실한 미치코는 고향 오사카를 그리워하지만, “관광객처럼” 재팬플라자의 “가짜 고향”으로 “고향의 기분”(이상 187)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소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차 찾지 못한 인물들은 새로운 대상·목적지를 찾아나서는데, 주체는 애도의 작동 결과로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과 관계 맺으면서 “그 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멜랑콜리의 이중적 성격과 직결된다. 멜랑콜리는 억압적인 현실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비판적 감정을 이면에 내장하고 있다. 애도가 현실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그런 불만족의 개념적 지양 즉 이성적 사유에 의한 현실 순응을 피하는 것이라면 멜랑콜리는 역으로 개념적 지양에 저항한다.³⁷⁾ 멜랑콜리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 자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은연중에 드러낸다. 국제여행을 다룬 『도시와 나』의 인물들은 뿌리를 삭제 당함으로써 미지·무지의 주체로 간주되었지만,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을 통해 자아 정체성의 스펙터클³⁸⁾을 성취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유일한 미지의 대상으로 남는 것은 출발지·정주지다. 결국 정체성 부재·결핍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출발지·정주지인 셈이다. 이는 국가 경계 내 공간과 장소 정체성에 대한 인지의 주체가 여행자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⁹⁾

불구하고 “용기를 내”(206)보는 ‘나’를 묘사하면서 끝난다.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인물들이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결핍을 “잭팟을 맞을 거라는 환상”과 대체제를 통해 극복하고 충족할 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상 200)이 되어 버린다.

37) 최문규, 앞의 논문, 209쪽 참조.

38) 위의 논문, 211쪽 참조.

39) 국제여행을 다룬 『그 길 끝에 다시』의 여행소설들은 주로 멜랑콜리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 소설들은 멜랑콜리를 통해 국민국가의 공간구조 자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은연중에 드러내는 동시에 결핍을 상실로 치환함으로써 국민국가의 공간구조를 선험적인 것으로 승인한다. 인물들은 멜랑콜리를 통해 절대적 타자성을 관리 가능한 것으로 포섭하거나 고향상실 이전에 상실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내의 각 목적지들을 다시 근대 국민국가의 유기체적·위계적 공간 구조 안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공간구조의 허위성을 은폐한다.

5. 맺음말

이 글은, 소설집 『도시와 나』를 예로 들어 최근 한국의 여행소설이 국외의 공간과 장소 정체성을 어떻게 상상하고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자아 정체성, 근대성,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이를 더욱 뚜렷이 확인하기 위해 국내여행을 다룬 『그 길 끝에 다시』를 참고 텍스트로 활용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와 나』에 수록된 7편의 소설 중 5편이 여행소설이다. 이 소설들은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미지의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진행된다. 인물들은 자신의 이동을 관광·여행과 구별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열망을 드러내는데, 미지의 두 정체성 즉 목적지의 장소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상호의존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이 열망을 성취하고자 한다. 인물들은 미지 공간의 장소 정체성을 확인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지만, 미지를 지의 상태로 전환시킬 주체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시선들의 교차를 통해 장소 정체성에 대한 인지를 시도하며 이는 자아 정체성의 발견·조정 과정과 연동된다. 이 연동 양상은 미지의 발생이 인물들 즉 개인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유도하며, 미지의 대상이었던 자아 정체성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연화한다. 보다-알다-포획(소유)하다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제도화된 근대 관광이 장소 진정성을 통해 자아 진정성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도시와 나』의 소설들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체화되는 장소 정체성들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지니고 있었지만 상실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조정하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애도를 위한 순례여행을 다룬 『도시와 나』의 많은 소설들이 결핍을 상실로 치환하고 상실의 대상에 무지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는 멜랑콜리를 새로운 대상을 찾기 위한 애도로 가장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이 여행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주체 역시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동시에 멜랑콜리는 개념적 지양에 순종하지 않고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양면성을 지니는데, 『도시와 나』의 소설들은 개별 인물들을 인지의 주체로 호명해온 근대 국민국가 공간구조가 허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임을 폭로하기도 한다. 관광·여행 이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 구축에 대한 열망은 근대 관광과 근대 국민국가의 생산적 권력·위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거부를 드러낸다.

『도시와 나』의 국제여행소설들은, 국외 공간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지식과 무지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에 기인하여 구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자아 정체성은 공간의 장소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공간구조의 생산적 권력에 대한 승인과 부정 사이에 위치한 여행자 개인을 묘사해간다. 출발지·정주지인 한국(혹은 한국 내 도시)이 장소 정체성 부재·결핍의 공간으로 귀결되는 이유 역시 출발지·정주지의 장소 정체성을 인지하는 주체가 여행자 개인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였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경계 내 도시들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기억이 근대 국민국가의 유기체적·위계적 공간구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드러내면서 이 구조에 의한 내부 식민지성을 폭로하는 『그 길 끝에 다시』의 국내여행소설들과 의미 있는 공통점과 차이를 동시에 보인다.

▮주제어 : 국제여행소설, 장소 정체성, 근대, 국민국가, 공간구조, 개인, 멜랑콜리

<참고문헌>

- 정미경 · 성석제 · 함정임 · 백영옥 · 서진 · 윤고은 · 한은형, 『도시와 나』, 바람, 2013.
- 함정임 · 손홍규 · 이기호 · 윤고은 · 함정임 · 한창훈 · 김미월, 『그 길 끝에 다시』, 바람, 2014.
-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최병두 외, 『지구 ·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89쪽.
-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에도이론」, 『영어영문학』 58(4),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90쪽.
- 이미림 외,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17쪽, 30쪽, 32쪽, 140쪽.
-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한울, 2007, 34쪽.
- 차혜영, 「문화체험과 에스노그래피의 정치학-식민지 시대 서구지역 기행문 연구」, 『정신문화연구』 1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32쪽.
- 최문규, 「근대성과 “심미적 현상”으로서의 멜랑콜리」, 『비히너와 현대문학』 24, 한국비히너학회, 2005, 208~211쪽.
- 황국명, 「90년대 여행소설과 공간 전위」, 『오늘의 문예비평』 22, 오늘의 문예비평, 1996, 212쪽.
- 닝왕, 이진형 · 최석호 옮김,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34~35쪽, 39쪽, 43~45쪽, 97쪽, 114쪽, 209쪽.
- 이-푸 투안, 구동희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94쪽.
- 다니엘 부어스틴, 정태철 옮김, 『이미지와 환상』, 사계절출판사, 2004, 33~34쪽, 151쪽.
- 들뢰즈 · 가타리, 조한경 옮김,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7, 94쪽.
- 딕 맥켄널, 오상훈 역, 『관광객: 신유한계급론』, 일신사, 1994, 120~133쪽.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1~80쪽.
- 존 어리, 「관광사회학」, 크리스 쿠퍼 엮음, 고동완 옮김, 『포스트모던 관광의 이해와 연구』, 교문사, 2008, 16쪽.

G. J. 에쉬워드 · A. G. J. 디트보스트, 박석희 옮김, 『관광과 공간변형』, 일신사, 2000, 117~120쪽.

슬라보예 지젝, 오영숙 외 옮김, 『진짜 눈물의 공포』, 울력, 2004, 100쪽, 104쪽.

[Abstract]

**The Ways imagining Place Identity of Overseas Cities
through International Journey Novel
-With novels City and Me as examples-**

Cho, Myung-ki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way that travel epic imagines and composes overseas spaces(cities) or mental geography constructed or reenacted through travel and imagination which fixes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subject with novels 'City and me' as examples. Epics in the novels within the collection 'City and me', which deal with international travels, evolve along the process of recognizing place identity of unknown spaces and incorporating it into a part of knowledge. But as there is absence of the principal agent who can convert the unknown to the state of the known, they try to recognize place identity through various intersections of views, which is accompanied by the process of finding out and adjusting self-identity. discovery of the value of travel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through newly contained place identity as the object of knowledge paradoxically disguises self-identity which used to be the unknown as the already existing and known. Emotions of characters who visit unknown places and people carry melancholy, not complete condolence. If it is the fact that melancholy arises from the lack of the possession in the first place, not from the loss of the object of possession and thus, paradoxically disguises as if it used to possess the object by deceiving lack as loss and if condolence is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the object of loss and making it a part of principal agent by deleting otherness, characters' self-identities are lost,

not lacking and, hence, self-identity of the travelers are regarded to be recovered by controlling and devouring place identity of the destination. Characters are regarded as principal agents of the unknown and ignorance by having their roots deleted and settlement becomes space without identity by becoming a being which achieves deceptive spectacle of self-identity through place identity of destination. These epics of novels expose aspects of manifestation of modernity(post-modernity) in ambient way and reveals anxiety and horror latent in modernity(post-modernity).

【Key words】 : travel novel, place identity, modernity, nation state,
spatial structure, individual, melancholy

조명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자우편: ftw123@pusan.ac.kr

이 논문은 2016년 8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9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